

삿포로 여름축제 - 여름축제의 역사

삿포로 여름축제는 7 월 중순부터 8 월 중순에 걸쳐 삿포로 전체에서 1 개월 동안 개최되는 이벤트입니다. 당초부터 변하지 않고 계승되고 있는 것은 자선 정신입니다. 한부모가정과 장애인복지단체 등, 아동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복지단체에 매년 수백만 엔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삿포로 여름축제는 1954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칠석 별축제, 불꽃놀이, 어린이 스포대회, 보트축제, 본오도리, 반딧불이 잡기 등 시내 각지에서 열린 22 개의 이벤트를 모아 나카지마 공원을 메인 행사장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957 년에는 오도리 공원이 메인 행사장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개최되는 비어가든은 현재 축제의 중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삿포로 맥주의 역사는 1876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삿포로에는 일본 최대의 맥주브랜드 2 개사가 경영하는 양조소와 국내 유일의 맥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1972 년에 삿포로시가 독일 뮌헨(또 하나의 맥주의 도시)과 자매도시를 맺었으며, 삿포로 여름축제는 국제분위기가 풍성해졌습니다. 삿포로 독일마을에서는 옥토버 페스트의 정신을 토대로 독일의 맥주와 여러 종류의 독일 펌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맥주광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대기업 양조소 4 개사는 오도리 공원의 각 행사장에서 맥주와 맥주에 어울리는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도리 공원에서는 삿포로 여름축제의 또 하나의 이벤트인 훗카이 본오도리가 8 월 중순에 개최됩니다. 저녁에는 삿포로 TV 타워 근처 2 초메에 특별히 세워진 정자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에워쌉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는 8 월 첫 주말에 개최되는 스스키노 축제입니다. 스스키노는 오도리 공원의 남단에 인접해 있으며, 메인이벤트는 퍼레이드와 댄스 퍼포먼스입니다.